

# 순천 겨울철 사회안전망 꼼꼼히 챙긴다

농작물 피해 예방·산불예방·취약계층 지원 등  
통합관제센터 연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순천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0 겨울철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겨울철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로, 순천시는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화재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회재난 대응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산불예방 활동 강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적극 지원 등을 순천시 통합 관제 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폭설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제 살포기, 제설살남, 트럭 등 제설장비 57대를 준비하고 도로보수원 등 300여명의 인원을 확보했다. 또한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계량기를 현옷 등 보온재로 덮고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또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소방·건축·전기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 방화셔터 등 건축구조 문제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분야, 인입선, 배전판, 조명시설 등 전기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

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3명을 선발 운영하고 인자행기를 배치해 산불예방을 위한 제도·순찰뿐만 아니라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선제적 대응으로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읍면동 현장 지원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철새에 의한 AI 발생에 대비해 긴급방역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노숙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마중물함체 등 자생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겨울철 위기 가구에 대한 따뜻한 복지를 추진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 시민들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점검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산수유 열매 수확 구례군 산동면 일원에 산수유 열매가 알알이 매달려있는 가운데 환한 미소를 띠며 수확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넉넉하게 보인다. /구례군 제공

## 순천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센터' 건립 윤곽

시제품 개발·공정설비 시스템 완성단계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윤곽이 나왔다. 순천시 승주읍 일원에 100억 원을 들여 생산동 1개 층과 연구·지원동 3개층의 연면적 2,915㎡ 규모로 건립예정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지난 9월 설계공모를 마치고 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설계 및 제품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시제품 개발 및 공정설비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으며, 이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해 건립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공정설계·제품개발 용역과 건축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2월 착공해 같은 해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순천지역 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상품개발, 기능성 분석 및 평가, 공정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위탁생산, 창업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발효산업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국고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3년 동안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의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발효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곡성,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연말까지 총 4억원 투입

곡성군이 올 연말까지 총 4억 원을 들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곡성 아트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 실험예술진흥원과 위탁협약을 맺었다. 프로젝트에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비롯해 임근우, 문정규, 김석환 등 미술가 40여명이 참여한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새롭게 단장한 중동근린공원 산책로를 관계 공무원과 SNNC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광양 중동근린공원 산책로 새단장

포장재 교체 등 리모델링

광양시가 중동근린공원 산책로를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중동근린공원은 산책로 구간이 흙과 낙엽수로 인한 물 고임 현상과 노후된 포장길, 고르지 않은 바닥 면으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양시는 보행이 편리하도록 산책로를 C&K포장재로 교체했으며, 운동기구가 설치된 비포장면을 포장하고,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구간의 산책로 주변의 퇴적물을 제거했다.

공원 주변에는 아파트와 상가, 초·중·고 학교가 밀집돼 있고 공원 내 체육시

설과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 운동 등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산책로 리모델링은 지난 6월 광양시와 SNNC가 동반 상생 및 사회공헌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환원 사업으로, SNNC가 총 길이 3,243㎡에 1억8,000만 원을 투입했다.

광양시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은 "SNNC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휴양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공간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광양, 지역특화품목 신기술실용화 컨설팅

광양시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고 오는 18일에는 2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개소 연구회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6회 216명의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토마토, 양봉, 녹차, 산초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재배 작목이 동일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작목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토양관리, 재배기술, 유통·마케팅 분야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 컨설팅 교육이다.

올해 초 3월에 교육 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된 교육을 이번 달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위, 협력체계 마련 간담회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현황 및 협력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돌봄경제특위 박혜정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순천시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과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평생교육과는 방학 중 초등 돌봄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요구했으며, 여성가족과는 아이 돌봄의 건강 및 발달 체크 등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클릭! 고흥 속으로



#### 보성교육지원청 맘-품지원단 체험 활동

보성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최근 맘-품지원단 멘토-멘티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맘-품지원단의 '맘'은 엄마와 마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품'은 '품다'로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이다. 맘-품지원단은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제공하는 멘토링 봉사단으로 1대1 혹은 1대2 결연을 통해 정서적, 문화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체험은 오전에는 보양다원에서 보성의 특색인 차 예절교육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 함양과 맛있는 다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풍선 봉사동아리 '동심'과 연계해 풍선아트를 체험함으로써 멘토, 멘티들에게 큰 호응과 만족감을 선사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 순천대, 국회서 '10월에 핀 동백' 시사회

순천대가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순천대 학생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10·19 여수 10월에 핀 동백' 국회시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된 시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공동주최자를 비롯해 서동용, 김희재, 양항자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대 학생사회봉사단 '이실직고'는 한국장학재단, 여·순연구소 등 여러 기관과 협조해 여·순 사건에 대해 알고자 하는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했다. 순천대는 이후 다큐멘터리 '10월에 핀 동백'을 무상 배포해 많은 사람에게 여·순사건을 알리는 역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주연 기자



#### 곡성미래교육재단, 리더스아카데미 개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최근 리더스아카데미 '민간자격증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지도사 11명과 퍼실리테이터 10명을 배출했다. 리더스아카데미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곡성군의 장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교육재단에서는 군민의 성장과 자기계발을 돕고 지역 내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위해 리더스

아카데미에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올해 진로지도사 3급 교육과정 이수자는 독립된 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조직 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과정은 내년 실습과정을 확대해 실전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